

이복수 교수의 설교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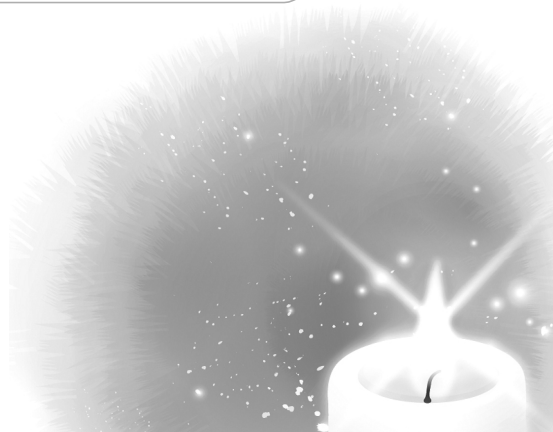
The World of Preaching in the Life of Professor Bok Soo Lee

강용원*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목 차

- I. 서론 | 95
- II. 이복수 교수의 설교에 나타난 신학 | 97
- III. 이복수 교수의 설교의 특징 | 114
- IV. 이복수 교수의 설교의 구성과 전개 | 122
- V. 결론 | 130



이복수 교수의 설교세계

이 연구는 이복수 교수의 설교를 인쇄된 70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그의 설교에 나타난 신학, 설교의 특징, 그리고 설교의 구성과 전개를 다루었다. 이복수 교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성경중심적 설교이다. 그의 설교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구원과 삶’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원’의 내용으로는 1)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2) 하나님의 선취적인 사랑, 3)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4) 죄의 용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소유, 5) 구원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삶’을 구성하는 내용은 1) 보장된 삶에 대한 소망과 확신, 2) 구원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의 헌신된 삶, 3) 회개하는 삶, 4) 축복으로서의 헌신된 삶, 5) 실천하는 성도와 공동체이다. 그의 설교는 교육적인 설교(didactic preaching)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본문에 기초한 주제설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의 설교는 쉽고, 논리적이며, 청중과 함께 가는 설교이다. 이를 위해 그는 청중이해와 자기노출을 중시한다. 또한 도전과 풍부한 적용으로 가득 차 있다. 설교의 구조와 전개 역시 말씀의 핵심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강용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위스 쥐리히 대학교 신학부에서 종교교육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Dr. theol.)을 받았다. 현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이며 신학대학장이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회장과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방법론』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The World of Preaching in the
Life of Professor Bok Soo Lee*

주요어

이복수 교수, 설교, 교육적 설교, 성경중심적 설교

Abstract

The World of Preaching in the Life of Professor Bok Soo Lee

Prof. Dr. Yong-Won Kang

This study is mainly to analyze 70 printed sermons of Professor Bok Soo Lee as it deals with his theology, characteristics of his sermons, their structures and developments. His sermons are Bible-centered sermons with a goal of communicating in the right way the Word of God. The main theme of his sermons can be summarized as ‘salvation and life.’ The contents of ‘salvation’ part are: 1) Sovereign God who is alive and working, 2) God’s initiating love, 3) God’s gift of salvation that can be received only by faith, 4) Possession of eternal life through the forgiveness of sins, 5) Jesus Christ, who is the center of salvation history. Now for the contents of ‘life’ in his sermons are: 1) Hope and assurance for the guaranteed life, 2) Life of commitment in true response to salvation, 3) Life of repentance, 4) Committed life as a blessing, 5) Christians and community that practice their faith. This sermons are mainly didactic preaching, and mainly composed of thematic sermons based on scripture texts. His sermons are easy to understand, logical, and appealing to audiences. For this purpose, he emphasizes understanding of

his audiences and self-exposure. Also his sermons are filled with challenges and ample applications. The structures and development of his sermons also focus on effective presentation on the core thoughts of the texts.

Keywords | Professor Bok Soo Lee, sermon, didactic preaching, Bible-centered preaching

I. 서론

이복수 교수는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연구자와의 이메일 면담을 통하여 그는 자신과 설교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대학부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골 교회를 담임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군중사병으로 지내는 동안에 군인교회에서 설교하는 기회를 계속 가졌습니다. 제대 후에는 다시 복학하여 역시 시골 교회의 담임전도사로 섬기면서 설교를 하였고, 브니엘 학교와 교회에서 어른들은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고 유학 후에는 교수로 지내면서 교회의 설교초청을 받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수로 사역하는 동안에 대략 1,300여회의 설교를 했고 260여 편 정도의 설교가 컴퓨터 작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학 이전의 교회사역 기간에는 700여회의 설교를 하였으며 당시 필기구로 기록된 설교가 300여편 남아 있습니다.”¹⁾

이 연구는 이복수 교수의 설교를 분석하는 것이다. 설교 분석의 대상은 그가 펴낸 설교집 3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저로 된 설교집이 있으니²⁾

-
- 1) 이복수 교수와의 이메일 면담(2012. 7. 30). 이복수 교수는 자신의 대표적인 설교를 말해 달라는 질문에 대답을 주저하면서 꼭 말해야 한다면 “승리의 삶”, “포도원 주인의 비유”, “교회와 성도의 선교적인 삶”을 들 수 있겠다고 했다.
 - 2) 이복수 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서울: 콤파출판사, 2005). 이 책에는 “그리스도인이 이해하는 평안(요 14:27)”, “그리스도인이 이해하는 복(마 5:1-12)”, “그리스도인이 이

여기에 실린 4편의 설교는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설교집 『크리스천의 바른 삶』에는 18편의 설교가 실려 있다.³⁾ 두 번째 설교집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는 1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8편, 2부 ‘똥는 해이신 예수’에 12편으로 총 20편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다.⁴⁾ 세 번째 설교집 『구원과 복된 새 삶』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구원과 복된 삶’에 13편, 2부 ‘믿음과 난관 극복의 삶’에 12편, 3부 ‘믿음과 용서 실천의 삶’에 7편으로 총 32편이 수록되어 있다.⁵⁾ 이상의 세 권의 설교집에는 총 70편이 실려 있다. 이 설교를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⁶⁾

이 교수의 설교분석은 그의 설교에 나타난 신학을 설교의 본문과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그의 설교의 특징을 살핀 후 설교의 구성과 전개를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로 진행하되 통계적 작업은 보조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⁷⁾

해하는 일(전 3:19-22)”, “기독교가 이해하는 이웃(눅 10:25-37)”의 네 편이 실려 있다.

- 3) 이복수, 『크리스천의 바른 삶』(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4).
- 4) 이복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7).
- 5) 이복수, 『구원과 복된 새 삶』(서울: 도서출판 영문, 2012).
- 6) 『구원과 복된 새 삶』에 실려있는 ‘난관을 극복하는 여인의 믿음’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실린 ‘절망 중에 만난 예수’는 상당부분 내용이 중복되기는 하나 독립된 설교로 취급하기로 한다.
- 7) 실제적인 설교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서동원, “곽선희 목사의 설교에 대한 수사학적 조명과 분석”, 『설교한국』 3(2)(2011): 156-173; 정인교, “이명직 목사의 설교세계분석과 신학적 경향성”, 『신학과 실천』 26(1)(2011): 251-285; 김재규, “김치선 목사의 설교”, 『신학지평』 13(2000): 131-168; 문성모, “곽선희 목사의 설교서론에 대한 분석과 방법론 연구”, 『신학과 실천』 9(2005): 83-108; 박삼식, “곽선희 목사의 설교에 대한 비평적 연구”(미간행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1); 전석범, “현대 한국교회 교역자의 설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새로운 전망”(미간행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1997).

Ⅱ. 이복수 교수의 설교에 나타난 신학

1. 설교관

이복수 교수는 자신의 설교관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말과 같이 늘 어렵고 조심스러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설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본문의 의미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엄청난 감동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해형태의 설교가 좋은 설교이지만 강해하는 과정을 설교시간에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강해로 찾아낸 자료를 설교에 담아내되 쉬운 표현으로 나타내는 설교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⁸⁾

이 교수는 무엇보다도 성경말씀에 충실하면서 본문이 말하고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달하는 것을 강조한다. 아무리 감동을 주는 설교라 하더라도 말씀에서 떠난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충실한 본문연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고,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좋은 설교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강해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언급하면서도 그 과정을 설교시간에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강해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주해를 하거나 혹은 신학강의 식으로 흐르는 설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에게 있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전달이다. 이 교수는 자신이 의도하는 설교의 목표를 다음과

8) 이복수 교수와의 이메일 면담 (2012. 7. 30).

같이 말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표현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편안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능한 비켜 나가려는 의도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놀라운 의미를 최대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부각시켜보려고 합니다.”⁹⁾

2.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를 이 교수는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흠뻑 적셔져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관련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다룬다. “우리는 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순전함으로 받아야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소규모의 소매상인 혹은 행상인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즉 물건 값은 비싼데 물건의 질은 형편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때문에 말씀 자체의 고귀한 가치를 저하시키는

9) 이복수 교수와의 이메일 면담 (2012. 7. 30).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다분히 보이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 기분에 좋으면 좋아라하고 은혜 받았다고 날 뚱니다. 자기의 기분을 상하는 말씀이면 금방 토라져서 불평불만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가치를 저하시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도 했다가 낮게도 평가하는 자세를 버립시다.”¹⁰⁾

또한 말씀은 순전함으로 받아야 한다. 순전함은 순수, 진실, 순진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과 순진한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한 사람, 목사가 내게 좋은 말을 하는구나’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어찌 그리스도로 흠뻑 젖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리스도를 알되 말씀대로 깊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에 변화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신의 자세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권을 따라 말씀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되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받아야 합니다.”¹¹⁾

한국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언급한다.

“어떤 이는 오직 주일 낮 예배 참석이 전부인데, 그나마 즐기만 하거나

10)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과 복된 새 삶』, 308.

11)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과 복된 새 삶』, 310.

아니면, 그 시간에 그 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에 대한 계획과 구상을 하느라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돌아가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편식을 하는데 재미있고 듣기에 부담 없는 것만 골라서 듣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며, 희망을 가지라는 내용의 말씀을 좋아하나, 헌신하고 봉사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은 맛이 없는 음식처럼 밀어내곤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 주로 지식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성경중심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경향이 보인다. 문학 작품이나 수필집의 내용들을 소개하여 가볍게 교훈을 주는 형태들의 설교를 좋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¹²⁾

설교자는 역시 말씀을 듣는 자이며, 이러한 자세를 기초로 할 때, 그는 바른 말씀 전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안 되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Heinrich Bullinger)라는 개신교 설교학의 기본명제를 준수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¹³⁾ 이복수 교수는 일반적인 설교자들의 설교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침을 놓는다.

“나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속에서 공신력을 찾으려면 복 받는 설교 좀 그만하고 베풀면서 사는 삶에 대하여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금룰에 대한 실천에 더욱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¹⁴⁾

12) “열매 맺는 삶 I”, 『크리스천의 바른 삶』, 152-153.

13) cf. 정인교, “Praedicatio verbi Dei est verbum Dei의 이론 설교학적(prinzipielle homiletische) 해석과 현대적 의의”, 『성경과 신학』 21 (1997): 119-158.

14) “황금룰 실천의 삶”, 『구원과 복된 새 삶』, 274.

“오늘의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을 소개하기 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지만 한국교회의 강단은 더 이상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망상을 따라서 거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발명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¹⁵⁾

“더욱이 이러한 경향에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편승하여 바른 예언을 못하는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도 조건 없는 낙관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성공지상주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살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¹⁶⁾

3. 설교의 본문

전석범에 의해 수행된 한국교회 설교자의 설교분석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 250편 중에서 구약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71편, 신약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175편이었으며, 신구약 본문을 함께 가진 설교는 4편이었다. 이는 신약본문이 70%를 차지하는 것이다.¹⁷⁾ 이복수 교수의 설교의 본문은 총 70편중에서 구약본문이 18편, 신약본문이 52편으로 신약본문이 74.3%를 차지하는 신약 편중현상을 보여주고 있다.¹⁸⁾ 같은 연구에 의하면 한국교회 설교의 20%

15)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구원과 복된 새 삶』, 353.

16) “새 힘의 공급을 위해”, 『구원과 복된 새 삶』, 363.

17) 전석범, “현대 한국교회 교역자의 설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새로운 전망”(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1997), 85.

18) 본문으로 선택한 신약의 성경을 보면, 로마서 14편, 요한복음 8편, 마태복음 7편, 요한1서 5편,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각 3편씩, 마가복음, 빌립보서 각 2편씩, 그리고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각 1편씩이었다. 이렇게 합해보면 53편이 되는데, 여기에는 로마서와 골로새서를 이중 본문으로 사용한 설교가 1편 포

정도가 5-7개의 성구를 인용하고 있다.¹⁹⁾ 이복수 교수는 70편의 설교 가운데 본문 외의 성경구절을 391 구절 인용함으로 평균 5.6회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설교의 주제

이복수 교수의 설교가 보여주는 주된 주제는 ‘구원과 삶’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설교에서 이 둘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 설교집 『구원과 복된 새 삶』이라는 제목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크리스천의 바른 삶』은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을 강조한다. 또한 ‘구원과 삶’의 연관성은 어느 설교 속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구원과 삶’이라는 두 주제를 그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교수는 “한국 교인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특별한 주제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사죄와 영원한 생명에 본질을 두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한다.²⁰⁾ 이 말은 그가 설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본다.

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통계를 보면 바울서신이 37편으로 전체 설교의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다. 본문으로 선택한 구약의 성경을 보면 시편 5편, 전도서 3편, 창세기, 출애굽기, 예레미야 각 2편씩, 그리고 잠언, 느헤미야, 열왕기상, 이사야 각 1편씩이다.

19) 전석범, “현대 한국교회 교역자의 설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새로운 전망”, 86. 전석범이 제시한 성경인용 통계를 역산하면 250편의 설교가 총 인용한 성구는 약 2,000여개로 나타난다. 평균 8개의 성구를 인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설교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제시하고 있는가이다.

20) 이복수 교수와의 이메일 면담 (2012. 7. 30).

1) 구원

(1)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무엇보다도 지으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특별히 인간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이시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기만 하셨다면 알파의 하나님은 되셔도 오메가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처음과 시작의 하나님은 되셔도 마지막과 끝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다. 만드신 것을 운행하시며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며, 마지막의 하나님, 끝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다.”²¹⁾

“고무줄을 양쪽에 잡고 가운데를 튕기면 그것의 진폭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 그것의 진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고무줄의 이쪽 끝과 저쪽의 끝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도 끝도 잡고 계신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이다. 때로 고무줄의 진폭이 심한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²²⁾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경륜 혹은 구원계획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21) “섭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22-23.

22) “섭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34-35.

이미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²³⁾

(2) 하나님의 선취적인 사랑

이 교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그 분의 선취적인 사랑을 강조함으로 설명해 나간다.

“아르헨티나의 산떼우베르또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기독교에 대한 반대의 논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19세 때 처음으로 성경을 사서 읽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기독교신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가 기독교신자가 된 후에 성경에서 가장 그를 사로잡은 말씀은 요한 1서 4:9-10절이라고 말했다. ‘...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²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시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면 인간이 용서할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인간은 용서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할 만하거나 용서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말 보잘 것 없는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감동과 감격을 금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²⁵⁾

23) “용서의 근원이신 하나님”, 『구원과 복된 새 삶』, 378-389.

24) “해변에서 사랑을 다짐하신 예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276-277.

25) “하나님 용서의 특징”, 『구원과 복된 새 삶』, 389.

(3)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의 설교는 강조한다.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 진리가 되는 내용을 감각기관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²⁶⁾ 그렇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는 자의 구원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강조의 표현인 ‘진실로 진실로’라고 표현하셨다면 믿는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언하시지 않는 주님, 실언하실 수도 없는 주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실패하심이 없는 주님, 한번 걱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전혀 없으며, 잘못 걱정하실 수도 없는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²⁷⁾

“설교자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을 뿐인 인간임을 더욱 느끼게 될 뿐입니다. 완벽한 신자인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을 보면 ‘과연 완벽해서 저렇게 설교하는가?’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²⁸⁾

(4) 죄의 용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소유

이 교수는 문법적인 설명을 통해서 믿음과 죄의 용서를 통한 영생의 소유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26) “구원의 확신”, 『구원과 복된 새 삶』, 11.

27) “구원의 확신”, 『구원과 복된 새 삶』, 17.

28) 이복수 교수와의 이메일 면담 (2012. 7. 30).

“본문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현재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씀에서 ‘얻었고’가... 현재형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단어는...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속되는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입니다. 여기 ‘옮겨졌느니라’는... 현재완료시제입니다. 현재완료시제의 표현이라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 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현재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완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 때에 이미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법적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 믿는 자는 이미 믿는 현재에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완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아직도 미래에 있는 일이기에 미래시제로 표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미래에 가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²⁹⁾

(5) 구원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중심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이 진정한 변화가 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이 그의 설교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주님만이 그의 전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의 신앙고백이며 삶의 목적이 아닐 수 없다.

29) “구원의 확신”, 『구원과 복된 새 삶』, 18-19.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악한 삶이 의로운 삶으로 바꾸어지게 하는 일을 하러 오셨다. 그의 변화시키는 사역은, 그것이 곧 구원인데, 그 구원은 생명을 얻게 하고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포함하는 일이다. 이 변화의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만의 일이다. 인간의 윤리가 할 수 없다고 항복했던 일이다. 늦게까지 기대를 걸어왔던 교육도 행복의 것발을 높이 들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 변화가 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과 악한 삶에서 밝고도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사역이다. 따라서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변화시키시는 사역 위에 편 아름다운 꽃이며 열매인 것이다.”³⁰⁾

“그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분은 역사의 주인이다. 그 분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참된 구주이다. 그 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다. 그 분이 만유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 분이 마땅히 섬김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참 대상이다. 그 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만유의 주인이다. 우리도 사도처럼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어지는 관심을 잃지 말자. 한 생애를 성공적으로 살아서 한 권의 전기가 기록된다면 나의 전기의 주인공이 주님으로 나타나게 하자.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어지며, 주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삶을 추구하자. 나의 삶을 이루는 매 순간순간과 모든 사건 하나하나 속에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³¹⁾

30)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173.

31)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167.

2) 삶

(1) 보장된 삶에 대한 소망과 확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의 소망을 내세에 속한 것으로 주신 것은 신자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소망을 현실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은 것은 신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세의 것을 말해 놓아야 한 인간을 끝까지 유인할 수 있기에 내세에 대한 소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세에 빛나는 소망의 요소가 실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재하는 사실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소망의 확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 거짓을 말해야 할 이유가 있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니 하는 소망이 아니라 확신에 넘치는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확신에 넘치는 소망을 품고 참으로 소망 중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³²⁾

신자의 삶은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 그의 삶은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한가? 승리가 보장된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삶은, 한결같은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게 하며, 담대함을 자아내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³³⁾

32) “기독교의 소망”, 『구원과 복된 새 삶』, 50-51.

(2) 구원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의 헌신된 삶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그의 삶 전체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겨우 미래에 있을 구원의 가능성을 얻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미래의 구원을 약속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좀 되는대로 살다가 조금 달라진 정도가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 했던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정도의 변화 이상으로 크고 원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그가 해야 하는 일도 그 의미가 당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신자가 일을 새롭게 할 수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새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의 일도 의미가 새로워졌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은 새 피조물이 사는 수단이 되어졌습니다. 일은 새로운 피조물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수단입니다.”³⁴⁾

(3) 회개하는 삶

믿는자에게 있어서 헌신된 삶은 언제나 회개의 삶을 동반함을 이 교수는 강조한다. 회개는 소극적으로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회개는 부단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만 의지하며, 그가 주시는 새 힘을 소유하게 되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33) “승리의 삶”, 『크리스천의 바른 삶』, 8.

34)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복”, 『구원과 복된 새 삶』, 197.

“크리스천이 열매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삶의 정돈을 위해서는 아픔이 따르기도 한다. 열매맺지 못하는 가치를 자르려고 할 때, 자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다.”³⁵⁾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참으로 앙망하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나 프로그램으로도 안됩니다.”³⁶⁾

(4) 축복으로서의 현신된 삶

이복수 교수는 바른 복에 대해 설교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강단이 잘 못 가르치는 축복관을 비판하기도 한다. 참된 복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적인 성취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이며, 그 안에서 현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강조한다. 그는 8복을 중심으로 이 복이 소유의 개념이나 건강의 개념이기 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며, 무엇보다도 주님과 바른 관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없이는 진정한 회개란 불가능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없이는 주님을 닮아 가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없이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궁핍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계속하여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마음 없이는 기독교인의 역할을 해 낼 수 없습니다.

35) “열매 맺는 삶 I”, 『크리스천의 바른 삶』, 158.

36) “새 힘의 공급을 위해”, 『구원과 복된 새 삶』, 362.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마음 없이는 주님을 위해 참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의 복은 세상적인 복과 개념이 다릅니다.”³⁷⁾

“저는 복에 대한 세상적인 개념과 기독교적인 개념의 차이를 두 용어 안에서 표현해 봅니다. 세상적인 개념은 소유(having)이고 기독교적인 개념은 상태(being)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복은 소유의 개념이고 기독교의 복은 상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하고, 안락해야만 복이지만, 신자의 복은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상태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복으로 믿고,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³⁸⁾

(5) 실천하는 성도와 공동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복수 교수의 설교는 말씀을 실천하는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말씀은 따라 사는 삶이 힘있는 삶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됨을 강조한다.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려면 희생하는 면에 눈을 떠야 합니다. 실천이 없는 아름다운 외침이 사라지고 희생하는 행위의

37) “그리스도인의 복”, 『구원과 복된 새 삶』, 87.

38) “그리스도인의 복”, 『구원과 복된 새 삶』, 94.

시대가 열리어야 합니다. 청산유수로 말하는 말쟁이들의 무대가 희생을 실천하는 무대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교회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고 말없는 희생을 잘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요건입니다.”³⁹⁾

“회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는데 필요한 통로를 여는 일이라면, 바르게 사는 삶은 새 힘을 구체적으로 공급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르게 살 때 힘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힘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르게 살 때 힘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적인 학문이 높을 때 힘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람은 바르게 살 때 힘이 있습니다.”⁴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사회 속에 있지만 우리로 통하여 사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태여 사회까지 들먹이지 말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만을 언급해 봅시다. 성도의 공동체도 역시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다름이 없습니까? 교회공동체 역시 시기와 다름이 있고, 불화와 분쟁이 있고, 싸늘하고 냉담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까? 만일 어떤 교회가 그러하다면 성도들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의 효력이 나타나지 못한 공동체로 머물러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이미

39)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과 복된 새 삶』, 314.

40) “새 힘의 공급을 위해”, 『구원과 복된 새 삶』, 366.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뿐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까지도 바꾸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⁴¹⁾

3) 구원과 삶의 연결점

이상에서 그의 설교의 주된 주제인 ‘구원과 삶’을 각각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설교에는 구원과 바른 삶의 관계가 언제나 논리적으로 전개되면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용서하는 삶에는 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진정 남을 용서하는 삶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쉽게 실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여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 남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불신자들은 술을 한잔 마시고 서로 화해를 잘하는데 신자들은 오히려 그들보다도 못하다는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술을 한잔 나누고 완전하게 화해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원리와 동기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 받은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이유와 동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받은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 나오게 되기에 성경은 심지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신자는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된 사람인가를 다시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⁴²⁾

41) “용서와 새 생활”, 『구원과 복된 새 삶』, 462.

42) “용서하는 삶의 제1전제”, 『구원과 복된 새 삶』, 403-405.

Ⅲ. 이복수 교수의 설교의 특징

1. 설교의 목적과 형태

바우만(J. D. Baumann)은 네 가지 유형의 설교를 말한다. 그것은 선포적 설교(kerygmatic preaching), 교육적 설교(didactic preaching), 치유적 설교(therapeutic preaching), 그리고 예언자적 설교(prophetic preaching)이다.⁴³⁾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복수 교수의 설교집에 나타난 설교는 거의 모두가 교육적 설교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교의 형태는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로 나누기는 하지만, 이 교수의 설교는 이 중 어느 하나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그의 설교의 형태는 본문에 기초를 둔 주제설교라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주제를 의식하고 편집한 세 권의 설교집을 기초한 것이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2. 설교의 특징

그의 설교는 쉽고, 논리적이며, 청중과 함께 가는 설교이며, 풍부한 도전과 적용이 있다.

43) cf. J. Daniel Baumann,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Grand Rapids: Bakers Book House, 1972), 205-220. 바우만은 케리그마적 설교는 불신자를 대상으로한 전도 설교, 교육적 설교는 신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르치는 설교, 치유적 설교는 신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 예언자적 설교는 신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라고 구분한다.

1) 쉬운 설교

이복수 교수의 설교는 우선 쉽다.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낸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오늘의 본문이 빌립보서 2:12-14절인데, 1-11절의 내용을 보면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12절에도 경성하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경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도의 소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코드에 맞아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코드에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주실 수도 없으며, 주신다 해도 깨다를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적지 않은 성도들은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바람에 맞추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는지 모른다. 자신의 욕심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자신의 이기심과 정복욕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을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다.”⁴⁴⁾

그는 적절한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기도 한다.

44) “소원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67-68.

“우리가 간혹 금연석 구분이 없었던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과 잠시 같이 지내고 나서 보면 담배 냄새가 옷에 젖어 있습니다.... 옛날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집에서 짰습니다. 그 기름을 짜던 자루는 그 자루가 없어질 때까지 기름 냄새를 풍겼습니다. 씻어서 말려도 기름 냄새를 풍겼습니다. 기름에 흠뻑 젖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그 자루에 완전히 배어들었기 때문입니다.”⁴⁵⁾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한 전도사로 지냈을 때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물금에 있는 한 고아원에 학생들과 함께 방문하곤 했다. 선물들을 나누어주며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 곳의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곤 했는데 그 곳의 아이들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때 만도 아직 아버지로 불릴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불렀다. 나 뿐만 아니라 함께 간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아버지라고 불렀다. 너무나 격에 맞지 않아서 참으로 어색한 느낌이 들었던 경험을 가진 적이 있다. 한 인간이 전혀 어색한 마음 없이 하나님을 진실하고도 다정하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다.”⁴⁶⁾

2) 논리적이며 변증적

이복수 교수의 설교는 논리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변증적이다. 그의 설교는 탄탄한 내적 구조로 결합되어 있어 쉬우면서도 사고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강한 호소력으로 다가온다.

45)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과 복된 새 삶』, 305-306.

46) “아바 아버지(1)”,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37.

“가치관의 문제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이 확신되지 않고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다... 신자가 마음과 가치에서 그리스도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면,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형성되지 않고는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면 가능하다. 내가 소유한 주님이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지면 다른 것 눈여겨보지 않게 될 수 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항상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을 자신 밖에 있다고 생각하여, 외부의 유행에만 민감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할만 하면 세상 유행,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패턴이 안(眼)중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이고, 관심을 고정시킬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⁴⁷⁾

“주님을 위하여 보다 값있고 내용 있는 삶을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라.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살도록 재촉하셨다.’고 말할 것이다. 비록 위대한 일은 못하였지만 악하고 추하게 살다가 그의 삶을 정돈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물어보자. 역시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다. 삶을 정돈하고 새롭게 살도록 주님께서 충동하시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⁴⁸⁾

“이처럼 신자가 최악의 현실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에 성도가 최악의 현실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은

47) “헌신하는 삶의 요건 I”, 『크리스천의 바른 삶』, 128-129.

48) “소원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72.

심각한 진단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주님과와의 참된 관계 속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이어서 죄를 미워하거나 죄와 대항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이 되었으나 아직도 속사람 보다는 죄악의 곁 사람에게 더욱 지배를 받고 있는 신자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세상에 많이 동화되어 있어서 선한 의식이 마비되어 있는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현실과 신앙으로 사는 삶 사이에서 갈등과 고충을 느낀다면 신자로서의 의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악 된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깨어 있다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뒤죽박죽되어 있으나 바로 살아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⁴⁹⁾

3) 청중과 함께 가는 설교

그의 설교는 청중과 대립하는 설교가 아니라 청중과 함께 가는 설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중이해와 자기노출이 중요하다.

(1) 청중이해

청중과 함께 가는 설교의 최선의 조건은 청중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본다.

“... 일반적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일은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이 더욱

49)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구원과 복된 새 삶』, 238-239.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상대하지만 평신도들은 직접 세상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생활 자체가 복음 사역이지만 평신도들은 세상에 더욱 노출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이 사실이라면, 평신도들은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하여 더 큰 노력과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다.”⁵⁰⁾

(2) 자기노출

이복수 교수는 설교에서 적절한 자기노출을 통하여 설교자와 청중의 간격을 메꾸어 나가는 일에 능하다. 그는 자신의 감정, 회개의 경험, 회기와 해결, 일상사, 심지어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노출한다.

“저는 노숙자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예배 후에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왈각 치솟은 눈물을 억제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국수를 넘치도록 담아서 너무나 급하게 드시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 배불리 먹어보는 것을 얼마나 원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⁵¹⁾

“저 역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1964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1966년 크리스마스의 아침에 있었던 경험입니다. 성탄 축하의 낮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죄악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는 사실에 내 마음이 부딪쳤습니다. 회개와 아울러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이 마르면서 찾아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 흘렸던 눈물이 깊은 눈물이었기에 찾아온 기쁨도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심한 아픔의 회개가 고도의 희열을 가져왔습니다.”⁵²⁾

50) “헌신하는 삶의 요건 I”, 『크리스천의 바른 삶』, 134.

51)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구원과 복된 새 삶』, 324.

“나는 14살 때 인간의 허무를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도 일찍이 허무를 느끼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느낀 허무는 대단히 깊고도 심각했다. ‘내가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가?’라는 문제였다. 때로 집 옆에 가까운 동산에 오르면 잔디가 잘 자란 무덤에 앉곤 했다. 그리고 생각을 시작했다. 이 무덤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만일 이 무덤이 오래된 무덤이라면 흙밖에 무엇이 있을까? 이 무덤의 주인공이 살았을 때는 나처럼 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지냈을 터인데 결국은 한줌의 흙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말인가? 그러면 나도 후일에 그렇게 되고 만다는 말인가? 너무나 슬픈 마음이었다. 내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는 저녁에 잠을 쉽게 잘 수 없었다. 잠자리에 들면 한 줌의 흙이 되고 만다는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게 울기도 했다 잠들기 위해서 숫자를 세기도 했다. 허무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잠들기 위하여 숫자를 세면서 잠을 청했던 것이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나 스스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기독교는 부활의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한다고 믿게 되었다. 내 신앙의 출발이 이러하다보니 신앙이란 내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기울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믿음의 삶이란 내세만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도 가장 가치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⁵³⁾

“한번은 우리 가족이 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의 아들이 놀고 있는 방에는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장난감이 거의 한방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52)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 『구원과 복된 새 삶』, 148-149.

53)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예수”, 『구원과 복된 새 삶』, 245-246.

보고 온 저의 아들이 ‘아버지 내가 그 집 아들이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⁵⁴⁾

“얼마 전에 ‘내가 소위 목사요, 교수라고 하면서 아직 이 정도 밖에 이르지 못했나?’라는 마음으로 온종일 주님 앞에 송구하게 지낸 일이 있다. 그날 아침에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아내가 하던 일을 그날 아침에는 가지고 내려가야 할 꾸러미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종이만 묶은 꾸러미가 있었는데, 분리 작업을 하던 한 아주머니가 제 종이 꾸러미 가운데 조그마한 플라스틱 용기를 보더니, 그것을 함께 넣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도 하도 조그만 것이고 원래 과자를 찢 종이에 붙여 있었기에 그냥 종이만 모으는 곳에 넣고는 들어오는데, 아주머니가 한 마디 쏘아 붙였다. ‘그런 일은 양심껏 좀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날 종일 하나님 앞에 미안스럽고 마음이 불편했었다.”⁵⁵⁾

4) 풍부한 도전과 적용

이복수 교수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적용은 결론부분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된다. 특히 결론 부분은 힘이 있어 큰 도전이 된다. 이것은 기록된 설교의 표현만 보아도 그 현장감을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어디든지 나와 함께하실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께 찬사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믿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좋은 분으로 상상하며

54)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구원과 복된 새 삶』, 323.

55) “헌신하는 삶의 내용”, 『크리스천의 바른 삶』, 113.

자신도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주님께 찬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이다. 이러한 삶이 곧 열매 맺고 있는 삶이다.”⁵⁶⁾

IV. 이복수 교수의 설교의 구성과 전개

1. 설교준비의 과정

설교준비의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설교의 본문이 정해지면 본문의 내용을 보다 깊이 파악하려는 입장에서 여러 번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읽어서 떠오른 내용을 두고 묵상하거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할 때는 주석을 살피면서 혹시나 여러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공통된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하기도 합니다.”⁵⁷⁾

2. 설교의 제목

한국교회의 설교 제목에 대한 분석은 강조어를 통한 방향 제시 41.6%, 의문문에 의한 방향 제시 6.4%, 명령문에 의한 방향 제시 14.4%, 서술문에 의한 방향제시 15.2%, 한정적 단어에 의한 방향제시 22.4%로 나타나고 있다.

56) “열매 맺는 삶 II”, 『크리스천의 바른 삶』, 167.

57) 이복수 교수와의 이메일 면담 (2012. 7. 30).

이를 보면 강조어나 한정어를 사용한 제목이 64%를 차지하고 있다.⁵⁸⁾

이 교수의 설교 제목은 한두 편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본문의 중심사상이나 설교의 핵심주제를 강조어와 한정어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결과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구절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온 제목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한국의 강단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36%) 설교 제목의 형태인 의문문, 명령문, 서술문에 의한 방향제시는 잘 보이지 않는다.⁵⁹⁾ 이복수 교수는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일과 관련하여 “본문에서 찾을 수 있으면 본문에서 찾지 않으면 설교의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제를 정한다.”고 말한다.⁶⁰⁾ 이 결과 이 교수의 설교제목들은 거의 수사학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공부나 교리공부의 제목처럼 보여져서 다소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3. 서론

이 교수는 서론에서 청중들의 주의를 끌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기우리도록 노력한다. 그의 서론은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로 생각과 관심을 모을 뿐 아니라 가능하면 그 주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 교수는 서론작성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가능한 서론에서 주의를 끌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58) 전석범, “현대 한국교회 교역자의 설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새로운 전망”, 90.

59) 이 교수의 설교 제목 중에서 의문문에 의한 제목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명령문에 의한 제목으로는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가 보인다. 서술문에 의한 제목은 보이지 않는다.

60) 이복수 교수와의 이메일 면담 (2012. 7. 30).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식으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식상한 시작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화나 생활에서 경험한 그러면서도 설교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⁶¹⁾

전석범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설교자의 서론 구성방법은 본문의 시대적 배경 10.4%, 본문해석 34.8%, 인간적 경험담 9.6%, 절기나 계절의 언급 4.8%, 문제의 제기 18%, 인용구 8%, 예화 14.4%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⁶²⁾

이복수 교수의 설교를 서론 형식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주로 성경본문의 배경과 형식으로부터 시작하는 서론이 19편, 인간사의 다양한 일로부터 도출하는 서론이 7편, 문제의 제기 23편, 인용 5편, 예화 16편 등이다. 이렇게 보면 이 교수는 1) 본문의 배경과 주제로 부터 시작하는 것, 2) 주제에 관한 문제의 제기, 3) 다양한 인간사를 포함한 예화로 시작하는 것이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론의 예를 들어본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한번은 공원을 걷고 있던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영국의 웅장한 교회 건물들은 지난날의 전성기를 말해주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도 텅텅 비어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걷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의 대답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나왔을 때는 사람이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구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분의 대답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삶이 부해지면 마음의 가난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61) 이복수 교수와의 이메일 면담 (2012. 7. 30).

62) 전석범, “현대 한국교회 교역자의 설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새로운 전망”, 93.

하나를 더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르칠 때 기독교의 소망,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⁶³⁾

“인간의 삶에 때로 고통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는 고통은 때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주는 이러한 의미 때문에 어떤 이는 고난을 미화시킨 이론이나 문학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아무리 미화시켜도 사람은 하나같이 고통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인간 삶 전체를 고난으로만 파악하여 그러한 고난의 삶을 미리 두려워한 나머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통념을 뒤집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⁶⁴⁾

4. 대지의 구분과 전개

일반적으로 한국 설교자들의 설교 구조는 3대지 설교가 주종을 이룬다고 본다.⁶⁵⁾ 그러나 이복수 교수의 설교는 대지 구분에서 꽤 자유로움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설교가 3-4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꼭 설교의 명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대지는 아니다. 이 교수의 설교의 대지는 본문의 단계나 발전적 서술을 감안한 ‘전개적 대지’라고 부름이 옳을 것이다. 가끔 설교자들은 대지의 논리적 분류와 대지 간의 논리적 관계에 집착하다가

63) “기독교의 소망”, 『구원과 복된 새 삶』, 40-41.

64)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구원과 복된 새 삶』, 233.

65) 대지 구분이 없는 설교 8.4%, 2대지 설교 10%, 3대지 설교 52.4%, 4대지 이상의 설교 29.2%이다. 전석범, “현대 한국교회 교역자의 설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새로운 전망”, 98.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스스로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논리적 일관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본문전개에 비중을 두는 설교자는 훨씬 더 폭넓고 유연하게 본문의 핵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⁶⁶⁾

5. 예화의 활용

한국 설교자들이 사용하는 예화의 출처는 1/3 이상이 성경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학적 예화, 인간경험 예화, 역사적 예화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⁶⁷⁾ 그러나 성경적 예화의 사용을 개수로 정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며,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실상 설교란 본문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연관본문과 더 넓은 확장된 본문(어쩌면 성경 전체)과의 관련 속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 교수의 설교가 사용하는 예화를 성경예화와 인용을 제외하고 역사적 예화, 전기적 예화, 인간경험(개인경험 포함), 자연과 과학적 예화 등을 중심으로 세어보았다. 그는 약 160여개의 예화를 사용하고 있어 설교한 편 당 평균 2.8개의 예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가능한 많은 빈도의 예화를 사용하려 하지 않으려 하지만 내용에 꼭 어울리는 예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예화가 기억에 남기 보다는 설교의 본론이 남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⁶⁸⁾ 무엇보다도 그는 적절한 예화를

66) “반드시 3~4대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지 구분이 명확한 것은 대지를 나누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체 내용의 흐름을 단락들을 나누어 구성합니다. 가능하면 후자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복수 교수와의 이메일 면담 (2012. 7. 30).

67) 성서적 예화 36.4%, 역사적 예화 11.2%, 전기적 예화 7.6%, 인간경험 예화 12.4%, 자연과 과학적 예화 8.0%, 문학적 예화 17.6%, 기타 6.8%이다. 전석범, “현대 한국교회 교역자의 설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새로운 전망”, 109.

68) 이복수 교수와의 이메일 면담 (2012. 7. 30).

찾아서 설교를 알아듣기 쉽게 하는 일에 매우 유능하다.

6. 유머의 사용

그의 설교에는 잔잔한 웃음이 있다. 그의 유머는 지나치지 않아서 진지한 느낌까지 든다. 그의 유머는 단순히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이야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는 그의 깊은 의도가 담겨있다고 본다.

그는 오래전에 가졌던 부산 당감동의 화장막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어둡게만 묘사될 정경을 약간의 유머로 순화시켜 주고 있다.

“나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서 화부들이 일하는 데로 가 보았습니다. 커다란 구멍에 시체가 팍팍 타 녹아내리는 것이 보이는데 화부들이 그 구멍으로 굵직한 쇠꼬챙이를 넣어서 휘젓고 있었습니다. 3시간 정도 뒤에 화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는데 상상외였습니다. 나는 뼈들이 시체모양대로 차려 자세로 있을 줄 알았습니다. 관이 탄 재와 뼈 몇 조각뿐이었습니다.”⁶⁹⁾

이제 몇 가지 그의 유머 활용의 예를 보기로 한다.

“제가 유학생할을 하고 있을 때 외국의 목사들에게 한국교회에서 새벽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자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⁷⁰⁾

69) “참된 소망”, 『구원과 복된 새 삶』, 68.

70) “황금룰 실천의 삶”, 『구원과 복된 새 삶』, 262.

“저는 고신대학교의 경건회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에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최상의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오늘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용 있는 삶을 펼쳐주실 것이다.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없다면 감히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내가 나서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⁷¹⁾

“완행열차를 타고 가다가 좌석 때문에 한바탕 싸움을 일으키고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 옆을 지나다가 반가운 듯이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이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리하나 양보할 수 없이 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⁷²⁾

“목사님이 어찌다 한 교인의 가정에 심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더니, 성경을 찾으라고 야단법석이였다. 한참 뒤져 찾은 뒤에 성경을 펼치는데 성경 속에 들어있었던 안경을 발견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아, 내 안경이 여기 있었구나, 안경이 안 보여서 몇 달이나 불편했는데....’”⁷³⁾

이 교수는 설교의 전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설교의 전달은 진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혹 시작의 과정에 주의를 끌기 위하여 다소 함께 웃고 시작할 수 있겠지만 시중 웃기기 위한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화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은 본문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화로 말하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71) “심고 거두는 원리”, 『구원과 복된 새 삶』, 340.

72) “심고 거두는 원리”, 『구원과 복된 새 삶』, 342.

73) “열매 맺는 삶 I”, 『크리스천의 바른 삶』, 152.

우려를 합니다. 표현의 방법은 다소 강약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강조의 부분은 더욱 강도 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⁷⁴⁾

7. 결론과 적용

이 교수의 설교의 결론은 주로 전체의 내용을 다시 압축하면서 강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교의 끝을 맺는 문장으로 이 교수는 “...을 소원합니다”라는 표현을 예상외로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하기를 바랍니다”, 혹은 “...합시다”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일의 순리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을 위하는 일이거든 주님의 뜻인 줄 알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까? 주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는 일입니까? 물질을 드리는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두고 주의 뜻을 구하거나 찾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은 주의 뜻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을 하면서 순조롭지 못하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의심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로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거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계속하면 됩니다.”⁷⁵⁾

74) 이복수 교수와의 이메일 면담 (2012. 7. 30).

75) “전진에 수반되는 고통”, 『구원과 복된 새 삶』, 209.

V. 결론

이상과 같이 이복수 교수의 설교를 인쇄된 설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설교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구원과 삶’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원의 내용으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의 선취적인 사랑,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죄의 용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소유, 구원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이다. 삶을 구성하는 내용은 보장된 삶에 대한 소망과 확신, 구원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의 헌신된 삶, 회개하는 삶, 축복으로서의 헌신된 삶, 실천하는 성도와 공동체이다. 그는 항상 구원과 삶의 연결점에 관심을 갖는다.

그의 설교는 교육적인 설교이며, 본문에 기초한 주제설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의 설교는 쉽고, 논리적이며, 청중과 함께 가는 설교이며, 또한 도전과 적용으로 가득 차 있다. 설교의 구조와 전개 역시 말씀의 핵심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복수 교수는 성공적인 설교자이다. 그것은 청중들이 그의 설교를 좋아하고, 교회는 그를 다시 부른다는 것이다.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고 변증적이고 교육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깊은 깨달음과 도전을 준다. 교수가 설교집을 내는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얼마나 그가 설교를 진지하고 대하고 있으며 설교 사역을 정직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도서목록

- 김재규. “김치선 목사의 설교”. 『신학지평』 13 (2000): 131-168.
- 문성모. “곽선희 목사의 설교서론에 대한 분석과 방법론 연구”. 『신학과 실천』 9 (2005): 83-108.
- 박삼식. “곽선희 목사의 설교에 대한 비평적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1.
- 서동원. “곽선희 목사의 설교에 대한 수사학적 조명과 분석”. 『설교한국』 3(2) (2011): 156-173.
- 이복수. 『구원과 복된 새 삶』.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12.
- 이복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7.
- 이복수. 『크리스천의 바른 삶』.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4.
- 이복수 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서울: 쿰란출판사, 2005.
- 전석범. “현대 한국교회 교역자의 설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새로운 전망”. 미 간행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1997.
- 정인교. “이명직 목사의 설교세계분석과 신학적 경향성”. 『신학과 실천』 26(1) (2011): 251-285.
- 정인교. “Praedicatio verbi Dei est verbum Dei의 이론 설교학적(prinzipielle homiletische) 해석과 현대적 의의”. 『성경과 신학』 21 (1997): 119-158.
- Baumann, J. Daniel.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Grand Rapids: Bakers Book House, 1972.